

트라우마 치유모임 이끄는 5·18재단 송선태 상임이사



“개인의 상처로 끝나지 않는 5·18의 아픔 마음의 치료 통해 대물림 고통 끊어주고파”

“더이상 그들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유모임을 통해 5·18 유공자들이 새로운 삶을 찾았으면 합니다.”

최근 광주시 서구 쌍촌동 5·18기념재단 사무실에서 만난 송선태(56) 상임이사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치유모임’ 활동으로 5·18 유공자들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기를 기대했다.

5·18 기념재단은 10명의 유공자를 선정해 오는 10월부터 3개월간 트라우마 치유모임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학계나 단체 차원에서 5·18 관련자들의 신체적·심리적 변화에 대해 수 차례 실태조사와 표본을 만들었고 정책 제안까지 했지만, 정작 치료 계획을 세우거나 후유증 치료는 실행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자구책이다.

송 이사는 “지난 2006년에 조사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 지역에 거주하는 5·18 유공자 197명 중 95.9%(189명)가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금까지 43명의 5·18 유공자들이 트라우마로 인해 자살했다”며 심각한 문제임을 강조했다.

또 그는 “더 심각한 문제는 트라우마가 대물림 된다는 것”이라며 “부모가 5·18 관련자라는 사실 때문에 고통받는 2·3세대의 치료와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치유모임에 대해 “5·18 유공자들의 정신적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재단은 이와 함께 트라우마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아시아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광주에 유치하기 위해 전문가 용역을 발주하고, 광주

시에 센터 건립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이처럼 송 이사가 트라우마에 관심이 높은 이유는 자신 역시 80년 5월의 후유증으로 아직까지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대 국문학과 재학 당시 스물 다섯 때 80년 5·18 시위현장에 가담했고, 그해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옥고를 치렀다. 당시 수 차례 당한 고문으로 허리가 뒤틀리고 고막이 찢어져 지금까지 난청을 호소하고 있다. 고문 당하는 악몽을 꾸다가 ‘악’ 소리를 내 가족들을 놀라게 하는 건 일상이다.

송 이사는 “5·18 트라우마는 개인의 경험과 고통에 머무르지 않는 일”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한국신문협회 NIE 원격직무연수

한국신문협회가 여름방학을 맞아 전국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신문활용교육(NIE) 원격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연수는 8월1~21일과 8월15일~9월4일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되며, 참가 인원은 각각 200명이다.

참가신청은 오는 13일부터 신문협회 홈페이지(www.presskorea.or.kr)나 티처빌 원격연수사이트(http://kan.teacherville.co.kr)로 하면 된다.

강의는 모두 30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읽기와 쓰기 능력을 키우는 NIE’와 ‘논술 능력을 키우는 NIE’ 두 주제로 실시된다. 연수를 마친 교사는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에 따라 2학점을 취득하게 된다. 참가비는 2만원이다.

강의는 NIE·논술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권영부 NIE 한국위원회 부위원장이 진행할 예정이다.

원격직무연수 참가자를 대상으로 집합연수도 8월 9일 오후 2시30분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진행한다. 집합연수에서는 NIE 전문강사가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소개하고 수업연도도 실시한다. 참가자에게는 협회에서 발간한 ‘교사용 NIE 가이드’ 책자와 신문의 가치를 주제로 한 동영상 ‘신문의 미래, 미래의 신문’을 무료로 제공한다.

신문협회 교사원격직무연수 과정은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품질 인증을 받았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임형주 ‘사랑의 열매’ 홍보대사 위촉



팝페라 가수 임형주(25)가 ‘사랑의 열매’ 홍보대사로 위촉된다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6일 밝혔다.

위촉식은 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정동 공동모금회 1층 나눔 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임형주는 위촉식을 한 후 주변 직장인을 대상으로 커피 판매 등의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중·일 공무원 머리 맞대니 국제행사 홍보도 어렵지 않네요”

전남도 파견 차이시오전·무토하시요시씨

“자오상 하오(早上好), 오하이요 고자이마스(おはようございます).”

전남도청 경제통상과는 간단한 중국어, 일본어 인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 자매결연을 한 중국과 일본 지자체에서 파견 나온 중국인과 일본인 공무원 각각 1명씩이 근무하고 있는 ‘국제적인’ 사무실 분위기 덕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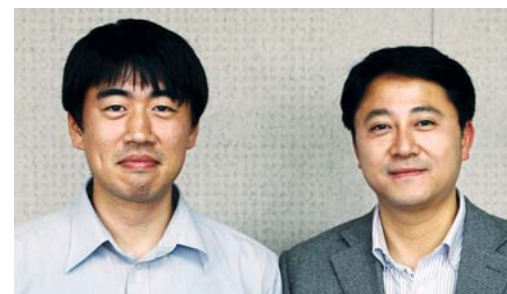
차이시오전(蔡少軍·38)씨는 중국 저장성 교육청 교학연구실 소속으로 저장성 교육청에서 중학교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다 지난 3월부터 전남도

에 1년간 파견돼 일하고 있다.

지난 4월 전남에 온 무토하시요시(武藤久祥·33)씨는 일본 사가현 국제과 소속으로 매년 열리는 한·일 연안 시도지사회의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전남도가 국제적 감각을 갖춘 공무원 양성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중국 저장성, 일본 사가현과 공무원 상호간 협력을 체결하면서 전남도청에서 함께 근무하게 됐다.

일본 사가현은 지난 1996년부터, 중국 저장성은 1998년부터 상호 파견을 시작해 지금까지 일본공무원 15명, 중국공무원 13명 등 모두 28명의 외국 공무원이 전남도에서 1년씩 근무했다.



무토하시요시씨(왼쪽)와 차이시오전씨.

이들은 중국, 일본지역 투자유치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여수세계박람회, 국제농업박람회 등 국제행사를 홍보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레이블 문화에 익숙한 이들이 처음에는 의자가 없는 음식점을 불편해 했으나 지금은 자연스럽게 양반다리도 하고, 잘 숙성된 김치, 매운음식, 삼겹살, 폭탄주도 즐긴다. 수박, 참외, 토마토 등 전남에서 친환경으로 재배한 과일은 중국이나 일본보다 당도는 높고 값은 싸다며 즐겨 먹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박종철인권상에 노동운동가 김진숙씨



«매년주말사법총질기법사업회는 제7회 ‘박종철인권상’ 수상자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위원은 한진중공업의 생산직 직원에 대한 대규모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1월6일 부산 영도조선소의 40m짜리 크레인에 올라간 뒤 지금까지 고공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한일 빛고을재단 원장 2주년 기념행사



이한일 빛고을노인복지재단 원장은 오는 10일 개원 2주년을 맞아 8일 ‘도전! 어르신 골든벨’ 행사, 10일 개원 기념식, 30일 상반기 프로그램 발표회 등을 주최한다.

이병렬 교수 한인상록회 한민족상



우석대학교는 최근 이병렬 행정학과 교수가 미국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 파인플라자에서 열린 ‘제10회 뉴저지 한인상록회 효행상 시상식’에서 한민족의 기상을 타민족에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아 한민족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news@kwangju.co.kr

김장훈·V원정대, 연평도에 평화의 메아리

“연평도를 평화지역으로 선언합니다!”

현충일을 하루 앞둔 지난 5일 지난해 북한에 포격 도발로 폐허가 됐던 연평도에서 가수 김장훈과 대학생자원봉사단인 V원정대가 평화의 메아리를 울렸다.

김장훈과 V원정대는 이날 오후 7시 인천시 옹진 연평도 종합운동장에서 ‘김장훈과 V원정대가 다시 부르는 희망의 노래-연평 아리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평화음악회를 열어 연평도를 평화지역으로 선포했다. 공연에는 팝페라 테너 임형주, 그룹 LPG, 이화여대 첼로 12

중주팀 이화첼리 등이 참여해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무대에 오른 이들은 저마다 연평도에 계속해서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했으며, 공연장을 찾은 500여명의 주민들은 열광적인 박수로 이들을 환영했다.

김장훈은 이번엔 연평도를 찾은 이유에 대해 “독도도 마찬가지로 연평도가 피격 후 점점 잊혀지고 있다는 생각이 관심을 다시 환기시키고 연평도 주민들과 어우러지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에 의미를 뒀다”고 밝혔다.

김장훈과 대학생자원봉사단 V



원정대는 지난 1월 김장훈 자선바자회에서 연평도 아이들을 처음 만났으며 이후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1만6000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V원정대는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연평도 아이들을 위해 ‘미래를 산타’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올해에는 연평도 중등학생과 함께 1박2일 서울 캠프스 투어와 공부방 등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염주초 환경의 날 기념 알뜰장터



광주 염주초등학교(교장 박천규)는 지난 4일 오전 교내 꿈자랑관에서 학생, 교원, 학부모가 참여한 가운데 ‘제16회 환경의 날’ 기념 염주알뜰장터를 열었다. <염주초등학교 제공>

초등학생 KT 통신시설 견학



KT호남네트워크융합단(단장 이종욱)은 최근 영광 백수초와 광주 마재초 학생 50여명을 초대해 KT 통신시설 견학행사를 실시했다. <KT호남네트워크융합단 제공>

장성군 선관위 민주시민정치교육



장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장성군 다문화가족센터에서 결혼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선거제도 강의 및 투표체험 등 민주시민정치교육을 실시했다. <장성군 선관위 제공>

생활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임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임영호·김명자씨 장남 응재(광주 도시철도공사)군 백상중·정영화씨 장녀 선향(영주초등학교 교사)양 =11일(토) 오전 11시 30분 문흥동 문흥동성당(문흥고가길)

모집

▲광주 장애인 문화협회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자 010-2727-1282.

동창·동문회

▲목포고 5회 동창회(회장 정병삼) 월례회 =7일(화) 오후 6시 금강산 식당 062-224-0808.
▲유은학원 2537(여성25·광상37

알림

회) 동창회 및 체육대회 =11일(토)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임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사)우리문화예술인 통통염서공모 =폐선부지 현푸른길공원의 사진과 재미있는 사연을 함께 공모(선정되신분들에게 소정의 상품드림) 062-523-0474.
▲광주생명의 전화(실장 장숙) 24시간 전화상담(1588-9191) =월~금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격려. 062-223-9191.
▲인구보건복지협회.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의료, 법률, 상담지원), 청소년성상담 및 성교육. 062-673-1366, 062-671-4050.
▲광주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및 신고 전화 내용 비밀 보장 1577-1389.
▲광주해바라기 아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 =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정신지

체 장애인에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료·법률 지원 및 심리 치료 등 윈스톱 서비스 062-232-1375, www.forchild.or.kr

▲중고컴퓨터 기증하실 분 =광주·전남도내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가 장애인에게 중고 PC를 기증하실 개인, 단체, 기관 환영. (사)장애인복지회 광주·전남운동본부 062-511-0030.
▲무료자선봉사 =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용으로 음향장비(엠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광주장애이인권센터 무료 상담 =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62-369-0420 (1577-5364)
▲습관성도박(경마, 주식, 복권, 인터넷도박, 성인오락 등)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 =성요한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 (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프르레 학습증진컨설팅 저소득층 자녀 무료상담 =학교부적응, 성적부진, 성격적화, 교육관계, 정서장애, 개인상담. 010-6392-7137.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 =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사회복지법인 수원심버빌 노인종합복지센터 =65세 이상 요양등급판정 1~2등급 인정받으자. 기초생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보호. 062-959-2340.

부음

▲문재관씨 별세 경식·성인·경회·수경씨 부친상 =발인 8일(수) 조산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박규순씨 별세 윤홍숙(목사)·덕균(자영업)·영균(광주시청 도로계획담당)·용수(IQ 파워아시아 전무)씨 모친상 =발인 8일(수) 쌍촌동 한국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380-3444.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故 曺중호 님(남/77세)
子/子號: 박선중/장명희, 선호/김 현, 현향/김미숙
호실:401호
장지:영락공원
연락처:227-4383

故 趙장영 님(남/46세)
兄:고규상
호실:101호
장지:영락공원
발인:8월 7일
연락처:227-4385

故 趙장영 님(여/75세)
子/子號: 이선남/정삼숙, 중운
女/婿: 이문래/최창식
호실:402호
장지:화산이서선영
발인:8월 7일
연락처:227-4314

마음까지 원한식
孝 金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

謹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故 曺중호 님(남/77세)
子/子號: 송정재/이경희, 현숙/조현자, 준범/김현정
女/婿: 송지연/박형권, 희경/이경선
발인:8월 8일 08시00분
장지:영락공원
연락처:250-4410

故 曺장영 님(여/87세)
子/子號: 김중현, /고현숙, 중준/이문애, 중현/조귀영, 준복/홍영명
女/婿: 김복순/신경원
발인:8월 8일 08시00분
장지:담양군 봉산면
연락처:250-4412

故 曺장영 님(남/77세)
未亡人:김재애
子/子號: 박찬재, 경수/임은정, 문화/조미경, 홍영/유 미, 정민/황미영
女/婿: 박현숙/김명수
발인:8월 8일 08시00분
장지:해남 송지연 선영
연락처:250-4407

그린장례식장 24시간대기 (062)250-4455